

(재)중앙문화재연구원 2010년도 연구원 교육 일정
- 한국 선사시대 사회와 문화의 이해 -

(재)중앙문화재연구원에서는 충북대학교와 함께 2010년도 연구원 교육을 『한국 선사시대 사회와 문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특강을 개최합니다. 많은 연구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제 : 한국 선사시대 사회와 문화의 이해 : 이론 및 방법론적 대안의 모색

○ 기간 : 2010. 03. 25. ~ 2010. 09. 30. (4회)

○ 장소 : 중앙문화재연구원 세미나실(대전시 유성구 용산동 581번지)

○ 세부일정

1회	일시	2010. 03. 25.(목) 15:00~19:00	
	주제	선사시대 석기연구와 (도구제작)기술의 진화	
	제목	과쇄역학 및 구석기 도구의 생성과정	유용욱(충남대학교)
	내용	구석기 유물은 다른 종류의 유물과 달리 자연적으로 깨진 석재와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경우 뚜렷하게 인공의 흔적이 남겨지게 되며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석기와 비석기의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결부되는 개념으로서 석기만이 가지는 물질적, 기술적 특징인 삭감과정 (reduction sequence)과 작업연쇄 (chaine opératoire)라는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본 강좌는 이러한 두가지 개념을 통해서 구석기 도구가 고인류에 의해 어떻게 제작, 사용, 폐기되었는지에 대한 일반론적 접근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목	‘도구론’으로서의 무문토기시대 석기 연구	이기성(한신대학교)
내용	기존의 무문토기시대 석기 연구는 개별 석기 기종의 형식 분류와 계보를 밝히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그와 더불어 무문토기시대 도작 농경의 증거로서 석기가 언급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도구론’에서는 석기를 개별 유물로서가 아닌, 선사시대 생활 전반에 사용되어 왔던 토기, 목기 등을 포함한 도구 조성의 한 부분으로서 다룬다. 본 강좌에서는 ‘도구론’의 개념과 고고학에서의 의미를 우선 살펴보고, 무문토기시대 도구에서 석기가 가지는 의미와 그 역할, 그리고 시대에 따른 석기의 변화와 그에 연동하는 다른 소재 도구들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한다.		

2회	일시	2010. 05. 27.(목) 15:00~19:00	
	주제	한국 구석기/신석기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	
	제목	수렵채집민의 고고학과 한국 후기구석기 문화의 변화	성춘택(경희대학교)
	내용	<p>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수렵채집 사회 연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진화생태학(Evolutionary ecology) 또는 인간행동생태학(Human behavioral ecology)을 소개하고 한국의 선사시대 연구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특히 최적수렵채집모델(Optimal foraging theory) 등 수렵채집민의 생계와 이동성에 대한 모델들을 논의함으로써 한국의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로써 수렵채집민에 대한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논의들을 어떻게 선사고고학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p>	
	제목	한반도 신석기시대 문화변동과 동북아시아적 의미	임상택(부산대학교)
내용	<p>한반도의 신석기문화는 후빙기 이후 수렵채집민으로서의 기본 사회경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어로경제의 강화, 정착취락의 등장 및 발전, 초기농경의 수용 등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내적으로는 신석기사회의 발전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전체 차원에서의 광역문화변동과정의 일환으로 파악될 수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신석기시대 문화변동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p>		
3회	일시	2010. 07. 29.(목) 15:00~19:00	
	주제	신석기-청동기시대 전이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제목	신석기-청동기시대 생계경제 연구의 제문제	이준정(서울대학교)
	내용	<p>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화기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함께 급격한 생계경제의 변화를 경험한 시기이다. 현재의 많은 연구들은 그러한 변화의 의미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실, 체계적인 분석의 과정이나 개연적인 설명모형 수립의 절차를 밟고 있지는 못하다. 본 강연은 동물고고학의 관점에서 생계경제 복원의 방법 및 관련된 이론에 관해 탐색해보고자 한다. 많은 부분은 신석기·청동기시대와 관련이 있지만, 적잖은 정보가 원삼국·삼국시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하였다.</p>	
	제목	韓半島 靑銅器時代 開始期의 諸相	배진성(국립중앙박물관)
내용	<p>북한의 압록강~두만강유역부터 남부지역의 남강유역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별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의 문제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속에서 남한의 청동기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p>		

4회	일시	2010. 09. 30.(목) 15:00~19:00	
	주제	한국 청동기문화 이해의 다양한 방식	
	제목	‘경관’의 고고학적 이해	김종일(서울대학교)
	내용	<p>주거지와 무덤을 포함한 과거의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서 유물이나 유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물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경관을 이해하고 그러한 경관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해명하려는 노력이 유럽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강좌 기본적으로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공간’의 개념 대신 개인과 공동체들의 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의미화되고 주체화되는 ‘장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관, 즉 정치적 공간, 경제적 공간, 상징적 공간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관의 형성에서 권력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경관들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그리고 잠정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타협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물질문화와 경관에 대한 이해가 과거 사회의 해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심화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제목	청동기시대 사회조직의 역동성	김범철(충북대학교)
내용	<p>고고학 연구에서 사회조직 복원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복원 자체는 정적일 수밖에 없다. 본 강좌에서는 취락고고학, 가구고고학 등에서 이용되는 방법을 중심으로 고고학에서 어떻게 사회조직 복원을 복원하고 어떻게 하면 가미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주로 청동기시대 중기의 중서부지역 사례가 중심을 이루겠지만 원삼국 및 삼국시대에 대한 적용가능성도 제시해본다.</p>		